



즉시 배포용: 2017년 10월 2일

ANDREW M. CUOMO 주지사

CUOMO 주지사,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 희생자 기리기 위하여 반기로 내릴 것 지시

Andrew M. Cuomo 주지사는 오늘, 10월 2일부터 10월 6일 일몰까지 연방 정부의 선언에 따라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의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하여 모든 주 정부 건물에서 깃발을 반기 위치에 걸 것을 지시했습니다.

“무의미하고 잔인한 총기 난사로 또 다시 전국이 애통해하게 되었습니다. 뉴욕은 극악무도하고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총기 사고의 여파에서 라스베이거스와 함께 할 것입니다. 이렇게 암울한 날 희생자들과 희생자의 가족들을 생각하니 비통합니다.

저는 본 총기 난사로 인한 무고한 죽음과 되돌릴 수 없는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하여 주 건물에 반기 위치에 깃발을 걸 것을 지시했습니다. 국가로서, 국민으로서 함께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나 더 총기 폭력과 총기 난사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겪어야 할지 모릅니다.

저는 자세한 사실이 밝혀지는 동안 예방 수단으로 주 주변에 주요 지역에 추가 안전 조치를 취했습니다. 뉴욕 주민들과 뉴욕주 방문객들의 안전은 우리의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. 우리는 경계근무를 강화하고 있고, 현지 및 연방 정부 관리들 및 우리의 법 집행기관들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”

###

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: www.governor.ny.gov
뉴욕주 | Executive Chamber | press.office@exec.ny.gov | 518.474.8418